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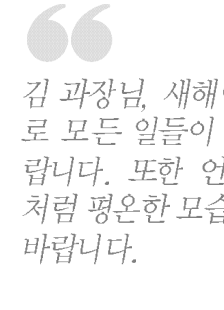
멘토, 멘티로 아름다운 인연 만들어가는 사람들

도움을 주는 사람인 멘토와 도움을 받는 사람인 멘티의 관계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회사 역시 마찬가지.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기 다른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서로를 멘토(Mentor), 혹은 멘티(Mentee)라 부르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호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직장 동료이자 친구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넷피아 글로벌서비스기획실의 이수정 과장과 국제사업본부의 김관영 과장을 만나보았다.

글 편집실 사진 김도형



“이 과장님도 새해에는 맡은 일에 역량을 다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배필을 만나 과장이기 이전에, 엄마(?)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시길...”



“김 과장님, 새해에는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평온한 모습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보릿자루와 크리스탈의 만남

이수정 과장과 김관영 과장은 입사일도 다르고, 현재는 부서도 다르지만 불과 두 달 남짓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오랜 지기인 양 편안하고 친근한 동료가 되었다고 한다.

“말도 별로 없고 한 마디 하려면 어쩌나 천천히 하던지, 처음엔 진짜 께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이 과장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불쑥 내뱉은 답변이다. 이 과장이 당시를 회상하며 김 과장에 대한 첫인상을 서슴없이 ‘보릿자루’라고 했던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히 과묵하고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매사에 여유롭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과장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예쁜 건 둘째 치고, 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정말 멋쟁이에요. 일하기에도 바쁠 텐데 어디서 인라인을 배웠는지 너무 잘 타서 ‘인라인 여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과장의 첫인상에 대해 김 과장은 할 말이 많다. 예쁜 외모부터 운동, 시간관리, 자기관리, 푹 부러지는 업무능력, 뚜렷한 철학 등 ‘보릿자루’의 묶어놓은 끈이 풀리기라도 한 듯 칭찬을 끊임없이 쏟아놓는다. 너무 좋은 말만으로 포장된 것 같아 굳이 별명을 하

나 지어달라는 필자의 말에, 김 과장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크리스탈’을 이야기한다.

“이름에서 생각한 것이긴 하지만, 이전부터 크리스탈처럼 맑고 선명한, 그러면서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멘티’이며 ‘멘토’이고 싶다

그들은 서로에게 멘티이며, 멘토이고 싶다고 말한다.

“김 과장에게 자국어인터넷주소와 관련한 국제 업무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 외에 그의 ‘인내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정말 본받으려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듯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김 과장은 특유의 인내와 이해심으로 그런 일들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 과장은 순순히 자신은 김 과장의 멘티라고 말한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멘토가 되어야 할 때면 언제든 힘이 되고 싶다고도 한다.

“이 과장과 부서는 다르지만, 자국어인터넷주소라는 매개체로 인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장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 과장에게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멘티로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기에 정말 본받을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2005년, 우리가 한다

어느덧 2005년의 태양은 떠오르고, 달력은 새 옷을 갈아입은 1월에 들어섰다. 만나고 함께한 일년이란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린 이때,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들어보았다.

먼저 이 과장은 “자국어인터넷주소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각오입니다. 또한 넓게는 95개국에 자국어인터넷주소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라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김 과장은 “인터넷 도메인 및 자국어인터넷주소 사업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전 세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이 2005년에는 남미 담당으로서, 브라질 등 남미사업에 앞장서서 자국어인터넷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멘토와 멘티로 함께하는 이수정 과장과 김관영 과장의 끈끈한 동료애만큼이나 2005년 넷피아의 앞길에 밝은 서광이 비출 것을 기대해 본다. n